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휴가철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고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 성서일기 진도가 지난 2일(월) 시편 42편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시편 48편입니다.

제 38 - 31 호

2021년 8월 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2021년의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벌써'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하루는 천천히 가도 일주일, 한 달은 빠르게 간다는 말이 실감나는 날들입니다. 모일만하면 모일 수 없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면 만날 수 없는데 흠어져있는 사랑방 식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무척 궁금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이방인,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린이들, 여자들,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12.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환자 열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13.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4.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15.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16.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7.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18.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19.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온 몸이 썩어들어 가고 저주 받은 병에 걸렸다고 가족들에게 조차 버림받은 나병환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있는 곳에서 멀찍이 서서라도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렀고 그 간절함을 들으신 예수님은 나병환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열 명의 나병환자들 모두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 중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에는 다른 9명이 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 병

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소리내어 영광을 돌립니다. 또 가던 길을 되돌아왔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세상적으로 자유케 할 제사장, 나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대한 복수도 아닙니다. 나머지 9명도 감사하다 생각할 수 있었지만 돌아오는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를 누리게 됨을 알았을 때, 그 즉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누리게 됨을 알았을 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게 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남은 2021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이 어려워지고, 만남이 힘들고, 걱정과 혼란이 생기겠지만 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주어진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 은혜 >

- 손경민님의 찬양 가사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한주간 말씀

“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
<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시편 44편

제목 :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68 219 336 430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절~3절 <조상이 낱알이 일러주었습니다.>

4절~8절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9절~16절 <주님께서 우리를 치욕 당하게 버렸습니다.>

17절~22절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23절~26절 <주님 깨어나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2. 내용의 의미(Why)

시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후반부는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에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무고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① 믿음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 ②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기억합니다.
- ③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신학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롬 12:2)

미성숙하다는 것은 세상을 본받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비기독교 문화를 본받고 그와 똑같은 사상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린아이밖에 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느 것이 좋은지 어느 것이 나쁜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린아이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특히 인본주의나 개인주의적인 신학이 세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성숙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어느 것이 옳은 말이고 어느 것이 틀린 사상인지 시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학에서 나온 사상 같지만 사실은 옛날부터 성경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확인받으라(prove)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왜 역사가 많이 나오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실험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시험을 통해서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시험(test)이나 검증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미성숙한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관념적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경험으로 확인하고 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상은 성숙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성숙한 신학은 윤리적인 신학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하나님나라]에서 발췌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23 : 1-6 인도자
43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갈라디아서 5 : 1 인도자
412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마태복음 11 : 28 - 30 설교자
390 사랑방
“ 편하고 가볍게 ” 권재만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419 다함께
인도자
455(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김중필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쉬지 못하는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잘 쉬고
세상에도 쉼을 주는 사람이 되게 인도 하소서. 아멘.

편하고 가볍게

하나님께서서는 안식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안식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이 진정한 의미에 쉼을 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로움이라는 덫에 잡혀 제대로 쉬지 못했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참된 쉼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이제 그 쉼을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쉼을 줄 테니 쉼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일에 얽매여 가족을 보지 못하고 주변의 이웃에게도 쉼을 주지 못하는 자가 아닌 서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자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예수님께 가져가 주님께 맡겨버리고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함께 쉼을 온전히 알고 계셨으며 그 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쉼을 알려주시고 또한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중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그들이 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휴가는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정신 없이 움직이던 손이 쉬고 바쁜 마음을 고요히 정돈하며 내 지친 영혼이 평온을 찾고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쉬는 그런 온전한 휴가를 보내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쉼을 보고 피조물 세계가 이것이 참된 삶이라는 것을 배우고 쉼을 누리는 휴가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김중필 집사

6학년 1학기를 보내고

이제 곧 방학이다. 1학년 때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은 몰랐는데 6학년이 되고 곧 어린이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니 조금씩 실감이 나는 것 같다. 졸업한다는 생각에 조금 뿌듯하기도 하지만 정말 아쉽기도 하다.

6학년 1학기를 보내보니 책임질 일도 많이 있고 하기 싫은 것도 많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해나가니까 힘이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정말 힘들면서도 재밌는 추억이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재밌지만은 않기도 했다. 책임질 일도 많아서 힘들고 여행을 제대로 못 갔던 것도 정말 아쉬웠다. 그래도 좋은 일, 힘들었던 일, 전부 추억이 되었다. 남은 한 학기도 알차고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 기한나 >

이번 학기는 시간이 느렸는데 빨랐고, 빨랐는데 느렸다.

학년장이 재미있다는 걸 느꼈다. 2학기에다 하고 싶다.

친구들이랑 있으면 웃음이 나온다. 5학년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학년이다. 그런데 내가 욕을 하는 것 같다. 내가 미쳤나 싶은 정도로 줄여볼 생각이다.

6학년 1학기는 힘들지만 재미있었다. 친구들이 소중하다. “애들아, 재밌었고 고마웠어.”라고 이 글을 끝내고 싶다.

< 김재준 >

나는 이번 학기에 그렇게 되고 싶었던 회장은 아니지만 총무가 되었다. 처음 겪는 총무 생활이 처음엔 정말 고달팠다. 첫 회의 시간에 아이들의, 정확히는 친구들의 나의 글씨체에 대한 온갖 비하하는 말에 시달렸다. 말다툼도 하고 포기하려고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진 총무 생활을 한다. 특히 스승의 날과 교장 선생님 생신 때 말이다. 그리고 올해는 배운 게 정말 많았다.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특히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 중 한 분의 가르침이 정말 값졌다. 이 가르침은 평생 기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6학년이 된 나의 소감은 최고 학년이라는 부담감과 반대되는, 최고 학년이 된 기대감, 내가 최고 학년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대표적인 감정이다.

< 박성현 >

이번 학기는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던 것 같다. 힘들 때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학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에버랜드 간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 왜냐하면 별로 기대 안 하고 갔더니 더 재밌었고 코로나 상황인데 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없는 것 같고 힘들었던 점은 한 번 숙제가 많았었는데 그때 힘들었었다.

< 이정연 >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학교 6학년 정아인입니다. 이 글에서는 올해 1학기를 보낸 소감을 적으려고 합니다. 1학기에는 제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회장으로서 책임감, 부담감 등이 많았던 1학기였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있어 제법 잘 지냈던 것 같아서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정말 정말 고마웠고, 또 아직 부족한 저를 잘 따라주고 응원해줬던 어린이학교 동생들에게도 너무 고마운 1학기였습니다. 더더욱 고마운 우리 임원단 친구들.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저를 늘 옆에서 지켜봐주며 서로 서로 힘이 되었던 임원단 총무 성현이와 서기인 은찬이에게 정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1학기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6학년이 되게 해주는 1학기였던 것 같아서 의미가 남는 학기였습니다.

< 정아인 >

1학기에는 많은 일이 있었고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 아무 생각 없이 한 학기를 보낸 것 같아서 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줄 걸! 하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때문에 원래대로의 학교생활은 못한 것 같지만 짧더라도 여행을 가고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시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다. 그리고 6학년이어서 뭔가 더 새롭게 느껴진 게 많은 것 같다. 서툴렀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이 말도 잘 들어주고 ‘언니 고마워’, ‘누나 고마워’라고 말해주어서 너무 고맷다.

지금 생각해보니 1학기가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 아쉽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것 같다.

< 최을 >

삼무정신을 음미하다

공동체에 들어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삼무정신이었습니다. 사랑방을 처음 찾았을 때, 몇 번씩이고 강조되어왔던 이 정신은 사랑방이 지켜나가는 근본적인 마음 중 하나라고 합니다. 멋쟁이학교 교사를 하면서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가장 많이 되뇌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준비를 마치면 선교를 갈 수 없다.' 언어와 자금, 조사와 인맥 등 많은 것들이 필요조건으로 제시되었고, 그 조건들을 채워나가면 이미 가진 것들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는 그 때, 부르심을 받은 그날이 가장 적절한 때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삼무정신은 이 말과 맞닿아있습니다. 이것은 사랑방의 철학이며 동시에 당시의 상황입니다. 사람과 돈과 건물이 없다. 사랑방이 공동체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사랑방공동체가 마주했던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 많은 이들이 좌절했고, 길을 돌렸습니다. 어쩌면 몇몇은 생각했을 것이고, 또 몇몇은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한 이들은 극소수입니다. 저는 그들을 꿈꾸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삼무정신은 현실을 무시하고 꿈꾸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어야 할 것이 있다고 되뇌었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믿고, 그 꿈을 향해서 삶을 던졌던 열정이었습니다. 그곳에 현실은 명백하게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것이 삼무정신입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과 코로나라는 시대. 그 외에도 수많은 현실의 그림자에서 사랑방은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부족하고,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위태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민하는 2021년의 사랑방에 1984년의 사랑방은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한다. 돈에 의한 경영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용을 채운다.

1997년, IMF의 위기를 겪으며 어려움이 가득할 때, 사랑방은 공동생활이라는 새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2021년, 코로나라는 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기에 가장 적절한 때, 도전하기에 가장 알맞은 날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삼무정신으로 현실을 직시하며 사랑방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위의 하나님 나라 라는 꿈을 품고 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모든 꿈꾸는 이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위로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담대함이 있기를.

디아코니아사랑방 이돈희 선생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로마서 12:12-21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기 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 캘리포니아 산불 진화를 위해
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플루머스 국유림에서 발생한 화재가 무시무시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폭염으로 산불들이 극심해졌고, 뉴욕시보다도 큰 면적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벌써 작년의 3배 이상으로 초목이 불타버렸고, 현재도 104개의 산불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산불의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은샘공동체
 - 1) 장애인들이 행복한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 2) 자립과 지역사회 협력을 위해 세워진 은샘치아바타 빵집이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섬기며 선교하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 3) 장애인 작업장이 세워져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해은 전도사님 가정이 중국에서 무사히 지내시도록
 - 2) 폭염과 코로나 변이 속에서도 지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유지되도록
 - 3) 검정고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생활공동체 소식 >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폭염이 몇 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가 계속 발효되어서 무림리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이 되는 날들입니다. 월요일부터 생활공동체 휴가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에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많이들 가정에서 휴식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했던 작업들이 남아 있어서 화요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높이 오르기 전에 일찌감치 모여서 작업을 하니 그나마 할 만했습니다. 배추와 무우를 심을 밭고랑 정리하는 작업도 함께 했습니다. 올 여름의 더위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가끔 내려주는 빗방울이 그나마 더위를 식혀주어서 참 다행입니다

< 정재훈 목사 >